**4과. 진리의 편에 굳게 서다. 2024년 4월 27일**

1. **진리의 대한 의문:**
   * **핍박의 시대.**
     + 핍박의 시간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고되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단. 7:25; 12:7; 계. 12:14); 1,260 일 (계. 11:3; 12:6); 마흔 두 달 (계. 11:2; 13:5). 위의 세 시간들은 모두 하나의 기간 즉 1,260 일을 말합니다.
     + 성경의 “하루는 일년”(겔 4:6; 민 14:34)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핍박은 1,260년 (서기 538에서 179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충성된 교회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계 12:6, 14).
     +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찾아 진리를 지켜냈습니다(시 46:1-3).
   * **핍박 중에 굳게 섬.**
     +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된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 법들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그 법들 중 대부분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과 유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충실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유 1:3).
2. **진리를 지켜냄:**
   * **성경말씀을 전함: 왈덴스 사람들.**
     +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친 프랑스의 부유한 사업가 피터 왈도(Peter Waldo, 1140-1218)는 ‘리옹의 가난한 자들’ (Poor of Lyon)로 알려진 “왈덴스 (Waldenses)”를 창설했습니다.
     + 왈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 그들은 최초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2.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기 때문에 왈덴스 사람들은 로마교황을 섬기는 사람들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손으로 베껴 적었습니다.
       3. 왈덴스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4. 그들은 성경 진리를 수백 년 동안 보존했고 그들의 충실함과 헌신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5.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마을사람들 모두가 이 성경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따랐습니다.
       6. 로마 교황청은 이 마을들의 대부분을 파괴했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 **개혁의 선구자: 잔 위크립.**
     + 존 위클리프(1324-1384)는 삶의 대부분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바쳤습니다. 위클리프는 왜 이런 삶을 택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셨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국가의 공식 교회(로마교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영국의 고위 관리들의 신임을 얻었고 (로마)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로마 교회는) 1428년에 위크리프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어 불태웠고 그 재를 강에 뿌렸습니다. 그의 흩어진 재는 위클립프가 남긴 성경이 세계로 퍼져 나간 상징이 되었습니다.
     + 존 위클리프가 밝힌 작은 진리의 빛은 보헤미아의 존 후스에게 전해졌고 이 빛은 계속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는 개혁의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 **믿음으로 굳세어 짐: 잔 허스와 그 외 선구자들.**
     + 존 위클리프 후에 새로운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1. 존 허스(1370-1415)
       2. 제롬 (1360-1416)
       3. 틴데일 (1494-1536)
       4. 휴 라티머 (1490-1555)
     + 그들은 어떻게 개혁을 시작하고 위협과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얻었을까요?
       1.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2. 예수님은 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도 남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3.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4.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간증이었습니다
       5.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넘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6. 그들에게 죽음은 이미 패배한 적이었습니다
       7.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 존 허스는 투옥되었고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얼마나 놀랍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에 그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